

2024. 9.

습지 보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무안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록·관리 전략 창안

##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024. 9. 2.[월] ~ 9. 7.[토] 5박 6일 / 일본 홋카이도 일원



무안군의회

# 목 차

I. 출장개요 .....	1
II. 추진경과 .....	2
III. 출장결과 .....	3
IV. 종합의견 .....	28

습지 보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무안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록·관리 전략 창안을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을 맞아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홋카이도 시레토코·쿠시로 습지 관리 주체와의 정보 공유와 상호발전 등 우리 군 생태계 보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한 공무 국외(일본)출장의 결과 보고서임.

## I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24. 9. 2.(월) ~ 2024. 9. 7.(토) / 5박 6일
- 출장지역: 일본 홋카이도(시레토코, 쿠시로 습지 일원)
- 출장목적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관리 우수사례 탐방
  - 습지 보전관리 체계 분석을 통한 우리군 적용 시사점 도출
- 출장인원: 16명[의원 2, 공무원 6, 지역주민 6, 민간전문가 2]

무안군의회			무안군			주 민		
연번	직위(급)	성 명	연번	직위(급)	성 명	연번	직위(급)	성 명
1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임현수	4	부 군 수	정현구	9	어촌계협의회회장	이창범
2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봉성	5	생태갯벌사업소장	허재경	10	어촌계협의회총무	이용혁
3	주무관	박석철	6	해양정책팀장	배소영	11	봉오재어촌계장	전필준
			7	해양수산연구소	문세영	12	장재어촌계장	최장몽
			8	주무관	강주훈	13	홀통어촌계	전경찬
						14	前어촌계협의회회장	김영섭

※ 민간 전문가: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경아, (주)농본 대표 성방욱

- 주요 방문지 및 활동내용
  - 【세계자연유산 등재·관리 방안】 시레토코 자연센터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사례 연구】 쿠시로습지 방문자센터 및 마을 견학
  -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 구조】 나가누마초 마을 및 저류지 견학
  - 【경관녹지 특화 방안】 팜토미타 구릉지 정원 견학

## ● 추진일정

월일 (요일)	출발	도착	업무수행내용	접촉 인물	비 고
9.2. (월)	인천	신치 토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국제공항 출국 수속</li> </ul>		
			숙 박		
9.3. (화)	시레 토코 국립공원		<input type="checkbox"/>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레 토코 국립공원 방문</li> <li>시레 토코 자연유산센터 방문</li> </ul>	시레 토코자연센터 다마키센터장, 위탁관리재단 사무국장	
			숙 박		
9.4. (수)	쿠시로 습지		<input type="checkbox"/> 쿠시로 습지 및 주민주도형 마을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네나이 방문자센터 관계자 면담</li> <li>두루미 마을의 지속가능 관광, 주민참여 사례 탐구</li> </ul>	온네나이 비지터센터 혼도센터장 츠루이촌장	
			숙 박		
9.5. (목)	비에이 후라노		<input type="checkbox"/> 우호·교류 / 선진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팜토미타 경관 농업, 패치워크 관람</li> <li>삿포로로 이동</li> </ul>		
			숙 박		
9.6. (금)	삿포로		<input type="checkbox"/> 유네스코 문화유산 및 두루미 서식지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방문</li> <li>나가누마초 생태보존 협력 구조 사례</li> </ul>	국립아이누 민족박물관 위탁관리재단 관계자 나가누마초 정책추진과 아카마유후, 촌장	
			숙 박		
9.7. (토)	신치 토세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국제공항 도착</li> </ul>		

## II 추진경과

- 2024. 8. 14. 「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주민 인식증진 사업」  
무안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요청(무안군수)
- 2024. 8. 22. 무안갯벌 주민 인식증진 사업 추진계획 수립(무안군수)
- 2024. 8. 29. 공무국외출장 허가(무안군의회의회장)
- 2024. 9. 2. ~ 9. 7. 공무국외출장 실시

### III 출장 결과

## 1 시레토코 국립공원, 세계유산센터

### 가. 기본 정보

시레  
토코  
국립  
공원  
(제2일)

#### ○ 주요현황

- 규모 : 육역(48,500ha), 해역(22,500ha)
- 생물 : 불곰, 범고래, 흰꼬리수리 등
- 식생 : 토도 소나무, 이타야 단풍 등으로 구성된 침엽수림
- 수산물 : 연어, 분홍연어, 명태, 다시마
- 1964년 국립공원 지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05년)



#### ○ 지역 특성

- 유빙이 가져다주는 바다의 은혜
- 연어가 솟아오르는 강으로 연결된 바다와 육지의 연결
- 바다, 강, 숲이 지탱하는 귀중한 야생 생물과 원시림

#### ○ 시레토코 재단(1988년 설립)

- 시레토코는 등재 이전에 1인당 1백㎡ 갖기 운동과 8천엔 기부운동, 4만 9천명이 참가, 기부액 5억2천만엔(41억원)에 달했으며, 이 기부금으로 취득한 토지는 4백59ha로 주민들이 보호하려던 땅의 95%를 매입
- 라우스초에서 출자에 가세, 행정기관(2명), 대다수 전문가로 구성
- 업무 : 자연해설, 조사연구, 교육연수, 산림재생, 싱크탱크 역할

#### ○ 관광인프라

- 시레토코 고코(知床五湖), 오신코신 폭포, 천국으로 가는 길, 프레페 폭포

#### ○ 활용전략

- 유산지구 마을의 먹거리, 불거리 등 계절별 특화된 축제로 관광객 유입
- 작은 어촌 우토로 마을(연간 2백만명 방문) : 해안절벽, 해식동굴, 폭포의 절경
- 연어·송어 자연 산란 관찰회(매년 9~11월)
- 어부가 직송하는 신선한 해산물을 숯불로 구워먹는 시레토코 반야마 쓰리 축제 개최
- 레이저 광선으로 오로라 칼라를 재현하는 오로라 판타지 이벤트 개최

#### ○ 주요 착안점

- 세계유산 등재 과정, 생태탐방로, 유산관광, 운영 프로그램, 시레토코 재단, 관리운영 체계 등

##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9. 3.(화) 09:30 ~ 15:30
- 장 소: 시레토코 세계유산센터, 자연센터 일원
- 주요 면담자: 시레토코재단 사무국장, 센터 관리자 등
- 주요내용: 시레토코 국립공원 현황, 세계유산등록 과정과 관리체계 등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국립공원 시설 탐방 등

##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시레토코 재단 사무국장

#### ▶ 시레토코 재단 소개

- 1988년 설립 이래 야생동물의 조사와 대책, 숲 만들기, 국립공원 이용의 적정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세계유산 시레토코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자연과 사람 함께 사는 시레토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 ▶ 시레토코 재단 인력 50명 정도이며 50%는 일시 고용 형태

- 관리인원은 지역주민과 시레토코를 좋아하는 외부인력이 참여하여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

#### ▶ 등재 후 주민의 역할과 혜택 부분

- 주민생활의 변화보다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린 지역으로 지역주민과 40km 생활권이 떨어져 있고, 에코투어리즘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

#### ▶ 시레토코 100평방미터 운동으로 시골의 들판 사기 운동

- 1977년 시레토코 국립공원 안에 남아 있는 개척터를 난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현지의 샤리초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기부운동 전개,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기부가 전해졌고 개시로부터 20년 후인 1997년에는 목표로 하고 있던 대상지의 거의 대부분을 매입 (참가자수 : 49,024명, 기부금액 5억2,253만엔)

#### ▶ 시레토코 숲을 만드는 기부(기부는 5,000엔부터)

- 1997년, 운동의 새로운 전개로서 지켜진 토지에 있었던 자연을 복원하는 운동을 위해 숲만들기와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대처 추진100제곱미터 운동의 숲 트러스트 (참가자수: 27만3,555명, 기부금액: 4억7,612만엔) / 2023.8월말 시점

#### ▶ 기부체계

- 개인(연회원 5,000엔, 종신회원 100,000엔), 법인(연회원 20,000엔, 특별년회원 100,000엔)
- 신청(현장, 우체국, 계좌이체, 로손 미니스톱 단말기 등)
- 5,000엔 이상 기부 시 재단의 활동보고서 발송
- 특전(회원증, 오리지널 핀 배지, 에코백, 자연센터 영상 무료관람, 기념품 할인 등)
- 법인회원 시레토코 재단 홈페이지 홍보물 게재
- 세액공제, 소득공제, 주민세 도도부현 공제, 상속세의 공제 등 혜택 있음

## 시레토코 유산 센터장(이타다미)

- ▶ 2005.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 ▶ 시레토코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후지산을 포함한 산맥이 솟아 있음
- ▶ 시레토코다케(1,254m), 로잔다케(1,562m), 라우스다케(1,660m)가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음
- ▶ 시레토코 자연유산은 국가기관인 환경성, 임야성, 홋카이도가 재정을 지원
- ▶ 연간 방문객수 170만
- ▶ 주민들은 관광 가이드로 보존활동 참여

##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 본래 국립공원인 시레토코는 지난 200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 대표 생태 관광지(Eco Tour)로 발돋움했음.
- 시레토코는 저위도에서 해빙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해빙과 연관된 해상생태계 및 육상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과 주변 산악지역의 식생, 또,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북방계와 남방계가 혼재된 다채로운 종의 구성 및 분포 외에도 국제적 희귀종의 서식지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음.
- 시레토코는 오토츠크해 남단, 즉 북반구의 가장 낮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해마다 겨울(1월)이면 북쪽으로부터 유빙이 떠밀려와 바다 전체를 뒤덮으며 시레토코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줌. 유빙이 운반한 풍부한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새우나 어류 등의 먹이가 되고, 이는 다시 흰죽지참수리나 흰꼬리수리와 같은 조류나 곰과 같은 포유류 등의 먹이 자원이 되는 것임.
- 결국 유빙이 풍요로운 바다 생태계를 만들어 육상 생태계를 돕는 중요한 생태순환 고리 역할을 함. 유네스코에서도 바다에서 육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태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해 자연유산 지역에 육상(48,500ha)뿐만 아니라 해역 22,500헥타르(ha)를 함께 포함시켰음.

## 【 불곰과 주민의 성공적인 공존 】

- 시레토코의 생태계는 풍부한 먹이자원과 바다와 육지가 어울린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레토코 지역에 약 200~300마리의 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단일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곰 서식지로 꼽히고 있음.
- 한때 불곰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르자 불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냈음. ‘원래 곰의 서식지였던 곳에 인간이 들어와 산다.’ 는 인식에서 출발해 불곰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대신 사람을 통제하는 방향을 택함으로써 성공적인 공존을 이뤄냄.
- 물론 불곰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살할 수밖에 없지만 탐방로 주변으로 낮은 전기 울타리 정도를 설치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인위적 안전장치를 최소화하였고 불곰 출현지역에 대한 상당기간의 누적 데이터도 보유함으로써 공존을 위한 균형점을 찾아 나간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호정책 수립하는데 롤모델로써 많은 부문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민·관 협치로 일궈낸 세계자연유산 등재 】

- 시레토코는 일본에서 세 번째(2005년)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이미 1993년부터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철저한 준비 끝에 이뤄낸 성과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노력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뿐 시레토코는 1990년 훨씬 이전부터 환경보존과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선양하기 위한 민·관의 일치된 노력을 전개해 왔음.
- 시레토코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써 1964년 6월에 일본에서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됨.

- 시레토코는 반도 양쪽에 두개의 마을을 거느리고 있는데, 오호츠크해 연안에 있는 마을이 샤리초(Shari Town, 斜里町)이며 반대편에 네무로 해협을 끼고 있는 곳이 라우스초(羅臼町)임.
- 시레토코의 자연보호와 유산 등재 노력은 샤리초에서 더욱 적극적이었으며 1972년 일본 내에서조차 사례가 매우 드문 ‘샤리초 자연보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듬해 1974년에 시레토코 현장을 연이어 제정했음.
- 샤리초는 오호츠크해의 칼바람과 한대기후 등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낙후성을 면치 못해 주민들이 집단 이주했던 불모지였으나 1970년대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자칫 지역의 터전이 거대자본에 잠식될 상황에 처했었음.
- 이 때 일본은 물론 세계가 주목한 ‘1인당 1백㎡ 갖기 운동’, ‘1인당 8천엔 기부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돼 투기바람을 몰아내고 마을을 지켜낼 수 있었음.
- 특히 ‘1인당 1백㎡ 갖기 운동’에는 지난 1997년까지 4만9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기부액만도 5억2천만엔에 달해 기부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관까지 세워졌고 이 기부금으로 취득한 토지는 무려 4백59ha(1백37만평)에 이르렀음.
- 하지만 시레토코의 이 같은 자연보호운동은 한때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음. 지역민이 원시림을 복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옆에서 정부가 국유림 별채를 계획하면서 실제로 1987년 봄 임야청이 별채를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결국 백기를 들며 별채 예정지를 포함한 시레토코의 국유림을 삼림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음.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환경청과 홋카이도 도가 앞장서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1인당 1백㎡ 갖기 운동’과 ‘8천엔 기부 운동’은 시레토코재단을 발족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음.

- 1988년에는 샤리초가 출자한 시레토코재단이 설립됐으며, 재단은 개인·종신회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재단의 연구원 등 직원은 모두 28명으로 시레토코의 자연해설, 조사연구, 교육연수, 국립공원 관리프로그램, 산림재생에 이르기까지 생태환경 보전과 시설관리·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음.
-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듬해인 2006년에는 인근 지자체인 라우스초(羅臼町)도 출자에 가세함으로써 재단의 위상과 역할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 실제 시레토코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에서 이 같은 샤리초의 생태환경 보전 노력이 유네스코 실사단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 시레토코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 1964년 6월 - 시레토코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 1986년 ~ 1987년 - 시레토코 국유림 벌채문제 제기
- 1998년 - 샤리 정, 라우스 정의 마을예산에 세계유산등록사업비가 산정
- 2003년 - 일본정부에서 시레토코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등록으로 추천할 것을 결정
- 2004년 -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
- 2004년 7월 - 국제자연보호연맹의 현지답사
- 2005년 7월 - 세계자연유산으로 정식등록

- 이처럼 시레토코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관의 협력과 체계적인 보전시스템이 구축되었기에 가능했으며, 나아가 에코투어와 같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수익과 접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 세계자연유산 등재 자체보다 관리·보전의 중요성 시사 】

- 현재 무안군에서는 행정과 행정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무안갯벌을 새로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유산 등재의 노력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법적·행정적 체계와 함께, 유산의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선결되어야 함.
- 또한 세계자연유산 등록신청에 앞서 지역사회 구성원 간 합의된 공동체여론이 도출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간 조율 시에도 개발지향 상업적 정책보다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자연유산의 보전에 우선순위를 설정한 정책적·제도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근거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민관이 조화된 자립역량의 배양과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선결되어야 함.
- 현재 진행중인 활동을 지켜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일반 지역민의 참여가 저조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등재의 목적이 지역관광수입의 증가, 고용기회의 확보, 관광 관련 산업의 활성화,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 경제적 이익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것임.
- 세계유산 등재의 본연의 목적은 등재 달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가치를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서 장래에 걸쳐 잘 가꾸어 가는 데 있음.
- 이와 동시에 해당 유산을 장래에 걸쳐 보전해 가야하는 큰 책임도 부여됨을 명심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무안군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세계유산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무안갯벌이 가지는 본질적인 자연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그 보전과 활용에 대해 지역 스스로 논의하고 실천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함.
- 특히 등재 달성 여부 그 자체보다는 등재 과정을 중시하면서 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할 것임.

마. 견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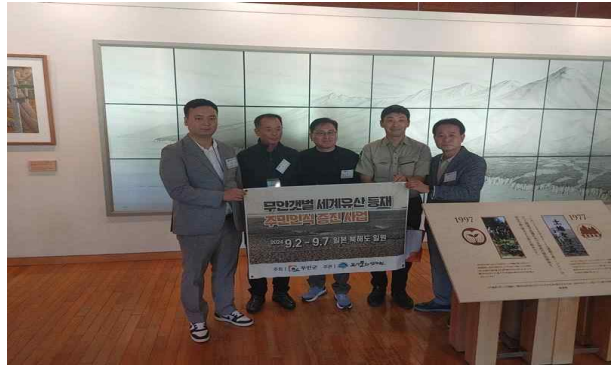
세계유산센터 브리핑 청취



전시시설 관람



땅 100평방미터갓기 특별관 관람



기념촬영



세계유산센터 홍보 영상 시청



자연센터 브리핑 청취



자연센터 안내영상 시청



기념품 판매점

## ② 쿠시로 습지, 츠루이무라

### 가. 기본 정보

쿠시로  
습지  
국립  
공원  
(제3일)

#### ○ 주요현황

- 규모 : 28,788ha
- 생물 : 포유류 39종, 조류 약 200종,  
과충류 5종, 양서류 4종, 어류 38종
- 천연기념물 지정
- 일본 1980년 랍사르협약 1호
- 1987년 국립공원 지정



#### ○ 지역특성

- 쿠샤로호(Lake Kussharo)에서 흘러나온 쿠시로천(Kushiro River)이 습지 북  
편을 사행하천을 이루며 북에서 남으로 흘러서 남쪽 쿠시로시를 거쳐 북  
태평양으로 흘러나감
- 1889년 두루미 포획금지령, 1924년에는 쿠시로 습지에서 아사 직전에 있는  
학 10여 마리가 발견되어 이듬해부터 쿠시로 습지 지역을 두루미 번식지로  
지정 후 사냥금지 구역으로 선포됨
- 1935년 두루미와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쿠시로 두루미 보  
호회’가 결성되어 더욱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이어감
- 주민과 정부 등이 협력하여 두루미 보호를 위한 노력 끝에 현재 약 600~700  
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지역 전체에는 1,200개체 이상의 두루  
미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두루미의 텃새화)
- 1980년 랍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쿠시로 습지를 처음 등록한 이래, 1993년  
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5차 랍사르 당사국 총회를 바로 쿠  
시로시에서 개최함

#### ○ 관광인프라

- 전망대와 비지터 센터를 중심 데크 트레킹 도보 답사
- 두루미 관찰장소 : 츠루미 이토 센츄어리, 아칸 국제두루미 센터 등
- 츠루이무라는 낙농업 기반사업으로 하는 작은마을로 ‘인구 2,600명의  
작은 마을체험 운영’을 콘셉트로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
- 농가의 일손을 돕고 숙식을 제공받는 홈스테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관광객 급증

#### ○ 생태계 훼손 및 복원

- 2001년 쿠시로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시작
- 쿠시로 습지 ‘자연복원 위원회’가 설립

#### ㉠ 주요 착안점

- 랍사르습지 복원·보존 효과 및 성공사례, 츠루이무라의 생태계 보존 협력 등

##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9. 4.(수) 09:30 ~ 16:00
- 장 소: 쿠시로 습지 방문자 센터, 츠루이무라 일원
- 주요 면담자: 재단법인 일본조류보호연맹이사, 관리직원 등
- 주요내용: 쿠시로 습원의 생성과정, 식생, 보전 노력 등 면담, 시설 탐방

##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공익재단법인 일본조류보호연맹이사 구시로지부장(혼토 타이로)

- ▶ 1980년 일본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지정,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 ▶ 구시로 습원의 생성
  - 구시로습원은 태고시대에는 바다였지만 6,000년 전에 해안이었다고 추측되는 장소에는 패총 등 조몬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바다가 후퇴한 뒤 토사 퇴적과 담수화가 진행되어, 3,000년 정도전에 습원이 탄생했다고 추측함.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동부에 하천과 호수가 모여 있음.
- ▶ 구시로 습원의 강과 식생
  - 굿샤로호 호수를 수원으로 하는 구시로 강을 비롯하여 주위의 구릉지와 습원의 경계에는 무수한 샘물이 흘러나옴. 구시로 습원 내의 강은 때때로 물길을 바꾸고 지표의 이탄을 씻어내기 때문에 물이끼 습원의 발달은 어렵고 습원 면적의 약 80%가 갈대 및 사초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 온네나이 지역의 고층습원
  - 구시로 습원 중에서 물이끼 습원은 전체의 약 20%로 최대 규모의 습원은 온네나이 근처 아카누마 부근에 있음. 구시로 습원중 유일하게 고층습원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온네나이 나무길임.
- ▶ 온네나이 나무길에서는 구릉지로 이어지는 오리나무 숲에서 조름나물과 제비붓꽃이 섞여 있는 갈대 및 사초 습원을 만날 수 있음.
- ▶ ‘쓰루이 마을 관광 10경’에 온네나이 고층습원 군락이 선정되어 사랑받고 있음.
- ▶ 대표적인 식생
  - 년출월굴, 백산차, 장지석남등이 꽃을 피우며, 카라, 조름나물 등이 있음. 특히 향아리를 엮어 놓은 듯한 풀 무더기는 포기사초 등 사초류의 그루터기가 지표에서 올라오면서 생긴 것으로 야치(곡지, 노지)라고 불리며 그루터기 모양이 까까중머리로 보여 ‘야치보즈’라고 불리게 됨.
- ▶ 보존노력
  - 구시로 습원 자연복원사업, 자연복원 촉진법에 따라 2003년 11월에 구시로 습원 자연복원위원회가 발족되어 지역주민, 관계기관, 행정기관이 하천복원과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되돌리고 사용하지 않는 농경지를 자연림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통해 구시로 습원의 보전 및 복원을 목적으로 협력

## 쁘루이무라 촌장(읍장)

- ▶ 일본 안에서는 추운 지역이지만 온난화, 기온상승에 따른 기후변화를 겪고 있음.
- ▶ 인구 2천5백명 규모의 낙농지역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붉은 머리 두루미의 재발견 100년을 맞이하게 됨.
- ▶ 홋카이도 두루미는 무분별한 사냥 등의 원인으로 절멸위기에 처했으며 1924년에는 아사 직전에 있는 학 10여 마리가 발견되어 이듬해부터 구시로습지 지역을 두루미 번식지로 지정하고 사냥 금지구역으로 선포
- ▶ 1935년 두루미와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쿠시로 두루미 보호회'가 결성
- ▶ 1,800에서 2,000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두루미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 전 세계 두루미 개체수 3,500마리 중 약 2,000마리가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고 있음. 주민들의 두루미 사랑은 특별해서 자발적으로 몇십 년간 먹이터를 만들어 그들을 보호해주고 개발 압력이 있는 농지나 땅을 무상으로 사회에 기증해 두루미 보호구역을 만들어 왔음.
- ▶ 특이점은 계절에 따라 대륙 간 이동을 하는 두루미 본래 특성과는 달리 이 지역의 두루미는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이동하는 텃새화가 되어 지역에서 종 보존을 위해 고민하는 중임.
- ▶ 두루미 활동(겨울~3월까지)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러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 ▶ 두루미 상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 【 습지 보존 노력과 생태관광 개념 도입 】

- 쿠시로 습지는 오랫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1960년말에서 1970년초까지 매립되어 간척지로 이용되거나, 토지개선, 배수공사, 댐건설 등에 이용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1971년 쿠시로 습지의 미래에 대한 시민 심포지움이 열리면서 쿠시로 습지의 생태계적 가치가 조금씩 인식되었고,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의 결과로 시정부는 해안선으로부터 6km 안쪽에서의 개발행위를 금지했음.
- 그 후에도 시민들은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82년 쿠시로 시정부는 환경성에 쿠시로 습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주기를 요청하여 1987년 일본의 2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음.
- 습지보전에 대한 쿠시로 지역주민의 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

들은 그들의 주요 산업이었던 어업 및 석탄산업 등이 쇠퇴할 것을 알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 하였음.

- 그러나 습지의 생태계는 주위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지양하고 대신에 생태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1995년에 ‘쿠시로 국제습지센터 기술위원회’가 생태관광이 지역공동체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혜택을 주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방문객의 안내, 수용시설 및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고용촉진 효과도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음.
-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이 생태관광산업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개발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아울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주민들과 사업자들 사이에 생겼음.
- 한편, 아칸(Akan)시와 츠루이(Tsurui)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두루미를 보호해왔는데 1910년대부터 두루미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보호활동을 하였고, 그 후 두루미가 급증하여 특히 겨울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 생태관광 개발을 통하여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습지가 관광, 레크리에이션, 낚시, 두루미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처, 그리고 문화활동과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땅으로 변모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음.
- 하마나카(Hamanaka)시 학교 등에서는 교육과정에 습지를 방문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함.
- 이처럼 쿠시로 습지는 지속적인 보전 활동을 통해 생태계 보호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세계 생태관광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음.

-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의 보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계 당국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음.
- 쿠시로 습지는 관광과 보전의 균형점을 찾은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교훈들은 무안군의 갯벌과 창포호 등의 습지 보전정책 수립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생태계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 높여 】

- 츠루이무라의 두루미 보호 사례 또한 자연 보호와 지역 사회의 상생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로 생태계 보전이 특정 종의 보호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줌.
- 특히 자연 보호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생태자원을 보유·관리하는 모든 곳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음.

## 마. 견학 사진

### 【 쿠시로습지 】



방문자센터 전경



내부 전시시설 전경



내부 관람시설 브리핑 청취



내부 관람시설 브리핑 청취



관리운영 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



습지 관람

**【 츠루이무라 】**



상견례



브리핑 청취 및 질의 응답



기념촬영



기념촬영

### 3 팜토미타

#### 가. 기본 정보

팜토  
미타  
(제4일)

##### ○ 주요현황

- 위치 : 소라치군 나카후라노정
- 면적 : 15만㎡
- 주요경관
  - 4월 크로커스
  - 5월 수선화와 튜립
  - 6월 하마나스, 작약
  - 6월 하순 라벤더
- 방문객 : 연간 100만명



##### ○ 관광

- 동화속 꿈의 정원, 후라노 / 비에이
- 일본 선호 여행지 트렌드 지수 1위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라벤더 꽃밭(개화시기 6월말 ~ 7월말)

##### ○ 특성

- 후라노의 라벤더는 1958년 팜토미타(ファーム富田)에서 재배를 시작하여 주변 농장에 라벤더 유행시킨 원조
- 1970년 중반 JR홋카이도에서 제작 배포한 달력에 팜토미타의 라벤더 사진 이미지가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짐.
- 팜토미타 농원 내의 꽃밭은 6개의 테마로 구성, 총면적은 3만평
- 홋카이도에서 사진 촬영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곳 중 하나로 매년 7월 중순 나카후라노 라벤더 축제가 개최됨.

##### ○ 관광인프라

- 6월부터 8월까지 특별 노로코고 열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라벤더 팜 지역에서 정차하여 7분 정도 걸어서 접근할 수 있음
- 라벤더 자료관(‘하나비토 하우스’), 라벤더 에센셜 오일 추출 공장, 포프리 하우스(기념품점, 카페) 등 증류소와 향수 워크숍 투어에 참가해 라벤더 오일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음
- 농원의 카페에서는 홋카이도산 야채로 만든 카레, 후라노빵으로 만든 징기스칸도그,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라벤더 벌꿀 푸딩 등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가 다양함

##### ○ 기타

- 8월 중순에서 겨울에 걸쳐서는 그린하우스 운영
- 비에이 청의 호수(아오이케), 흰수염폭포

##### ㉞ 주요 착안점

- 소도시 경관농업 성공사례 및 관리방향 소개

##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9. 5.(목) 10:30 ~ 12:20
- 장 소: 팜토미타 농원 일원
- 주요내용: 농원 시설 탐방, 관리운영 체계, 일자리 창출 현황, 주변 지역 연계 발전 방안 등

## 다. 견학내용 및 시사점

### 【 농업 · 관광 융복합산업의 대표 성공 모델 】

- 팜토미타는 1903년 라벤더 재배를 시작된 토미타 도쿠마씨의 이름을 딴 농장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라벤더를 생산하는 곳으로 약 10ha의 부지에 계절별로 라벤더, 양귀비, 안개꽃 등 100여 가지의 꽃을 식재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임.
- 후라노의 팜토미타는 1976년 일본 국철 달력에 사진이 소개되면서, 라벤더 산업이 쇠퇴하던 시기에 새로운 이슈를 일으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하여 인근 농장에서도 새롭게 라벤더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라벤더 재배가 확대되었음.
- 카페와 상점 일본 최대 규모의 드라이 플라워 전시공간, 향수 및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판매하는 매장, 라벤더 비누 제조공장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명목 수익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역 브랜드 가치 형성 】

- 팜토미타는 따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오픈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의 제품 구매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인력은 농장 30여명, 판매장 120여명 등이 근무, 연 100만명이 방문하여 연매출액은 7억엔 정도로 수익률은 낮은 편이나 인근지역 식당 및 숙박업소 등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일본 각지에서 라벤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북해도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어 인턴과 유사한 과정으로 농장일에 투입되고 있음.

## 【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 실현 】

- 지역의 자연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6차산업화 모델임.
- 라벤더 농장으로 시작하여 가공하여 판매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경관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유입에 기여하고 있음.
- 이처럼 팜토미타는 농업과 관광의 융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농업과 관광의 융합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연산업 육성 등 신활력사업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우리 지역이 복기해야 할 유용한 모델임.

## 【 6차산업 발골을 통한 농촌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 시사 】

- 특히 농촌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가공·유통·관광 등 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 순환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6차산업 발골은 우리지역의 필수 과제임.
- 구체적으로는 우리 지역도 지역 농산물 연계 가공 및 체험관광,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업 부문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남악신도시 등 지역 내 순환을 꾀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읍·면 등 다양한 농촌 공간 단위별로 적합한 자생적 농촌산업 집적지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럼으로써 농업·농촌의 생산 활동이 타 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에서 농업·농촌가치사슬의 영역 확대로 나타나 농업·농촌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라. 견학 사진



농원 전경



농원 전경



야외 기념품 판매점



종양 가로수길

## 4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 가. 기본 정보

국립  
아이누  
민족  
박물관  
(제5일)

#### ○ 위 치

- 홋카이도 시라오이군 시라오이초 와카쿠사초

#### ○ 설립목적

- ‘일본의 귀중한 문화’ 인 아이누 문화를 부흥·발전시킴과 함께, 선주민족의 존엄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가지는 활력 넘치는 사회’ 를 만들어가기 위함

#### ○ 주요현황

- 개 관 일 : 2020. 4. / 개관시간 : 09:00 ~ 18:00
- 주요시설 :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국립 민족공생공원, 체험·교류 프로그램, 레스토랑 푸드코트, 숲, 위령시설
-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 언어, 세계관, 생활상, 역사, 생업, 교류



- 국립아이누민족공원 : 문화교류관, 단체를 위한 활동, 크래프트 스튜디오, 아이누전통 마을, 칸탄, 게이트웨이 스퀘어, 엔트런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아이누전통 의식 무용)
- 보존을 위한 노력 : 아이누족 문화, 언어 전통을 전승할 수 있는 수의 감소에 대비해 아이누 전통문화를 보호 공간 마련

### ㉠ 주요 착안점

-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이누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낙지 맨손어업유산 프로그램 및 발전 방향 벤치마킹

##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9. 6.(금) 10:30 ~ 12:00
- 장 소: 국립아이누박물관 일원
- 주요 면담자: 박물관장, 재단 관계자, 관리 직원 등
- 주요내용: 박물관 설립 배경, 예산인력 등 관리·운영체계 등 면담, 시설 탐방

##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국립아이누박물관 사사키 시로 관장 외 5인

#### ▶ 아이누 정책의 주요 경위

- 1899년 : 홋카이도 보호법 의 제정
- 1974년 : 홋카이도에 대한 복지대책 지위 체계 마련
- 1997년 : 아이누 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 등에 대한 지식의 보급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년 : 아이누 정책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간담회 개최
- 2014년 : 민족 공생의 상징이 되는 공간 의 정비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 2019년 : 아이누 자부심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2020년 : 민족 공생 상징공간(우포포이)의 오픈 7.12일

#### ▶ 우포포이 개요

- 존립의 위기에 있는 아이누문화의 부흥을 위한 거점이 되는 내셔널센터 총공사비 200억엔 소요
- 공익재단법인 아이누민족문화재단이 운영 주체로 결정

#### ▶ 프로그램

- 아이누 문화 전승자에 의한 전통 기술 실연 등의 이벤트, 아이누 요리 체험, 문화해설

#### ▶ 이벤트

- 4.29~5.7 : 골든 위크 이벤트
- 7.15~17 : 우포포이 음식테마 이벤트
- 7.30~1.29 : 노가쿠와 아이누 무용의 특별 공연 개최
- 8.5 ~ 19 : 여름방학이벤트(가족단위 여름의 눈밤을 즐기는 이벤트)
- 11.3 : 우포포이 무료 개방 DAY
- 2.3 ~11 : 겨울의 이벤트

▶ 방문객 동향

- 방문객 누계 120만명이 찾고 있으며 그 중 교육 여행 방문자는 269천명(22.46%)를 차지하고 있음.

##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 [ 본토의 탄압과 아이누문화의 전승 노력 ]

-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은 일본의 선주민족인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설립됨.
- 아이누는 홋카이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 민족 중 하나로,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그 일대(사할린, 쿠릴 열도)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거주지에서 그들만의 언어, 음악, 요리 문화 등을 가지고 일본 본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왔음.
- 하지만 15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에도 막부의 영향력이 홋카이도에 미치게 되면서 교류는 탄압으로 바뀌었음.
- 이후 일본 제국으로 바뀌면서 그 탄압은 더욱 심해졌으며,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의 토지 몰수, 수렵 및 고유 풍습 금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 등을 시행하였음.
- 이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탄압과 비슷한 것으로 이후 일본이 패전 후 민주화가 되면서 아이누의 권익도 조금씩 나아지게 됨.
- 1994년에 학자이자 니부타니 댐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가야노 시게루가 아이누 최초의 참의원이 되었으며, “홋카이도 구 토인 보호법”을 폐지하고 “아이누 문화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2019년에 일본 정부로부터 아이누를 원주민으로 인정되었음.

## 【 과거의 아픈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공생 메시지 전달 】

- 이처럼 아이누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정책에 의해 토지와 자원을 빼앗기고 언어 사용이 금지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
- 이러한 교훈들은 아이누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선주민족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특히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초를 겪었다는 점과 그 아픔이 우리 민족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음에도 박물관이 탄압이나 수난과 같은 어두운 역사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매몰되지 않은 점이 매우 인상적임.
-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속 아이누는 외부인들의 수난과 탄압을 이겨내고 지켜온 정체성의 전승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더 풍요롭고 활력 넘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정부의 관심,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위탁관리 재단의 자체 노력으로 볼 때 아이누민족박물관이 아이누민족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전승하는 매개체로써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우리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복권과 기념사업화 실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복원, 임치진성 복원 등 아직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복원과 전승에 참고할 만함.

### 마. 견학 사진



입구시설 전경



매표소 전경



브리핑 청취



현황 브리핑



현황 브리핑



질의응답



현황설명 청취



전시시설 관람



전시시설 관람



전시시설 관람

## 5 나가누마초

### 가. 기본 정보



마이즈루 유수지



새의 역 '마오이토'

### 나가누 마초 (제5일)

#### ○ 나가누마초

- 나가누마초에서는 '틔새가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마이즈루 유수지에서 100년 만에 틔새의 새끼가 탄생

#### ○ 강 범람 방지를 위한 유수지 정책

- 나가누마초는 백로와 철새들이 살아왔지만, 습지를 메워 농경지를 만들면서 철새들은 사라지고 치토세 강가의 범람 피해가 가중됨
- 2012년 마이즈루 유수지 조성과정에서 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을 직선화하고 제방을 쌓는 대신 총 6개의 유수지를 만들어 홍수를 예방함
- 평상시에 일부는 공터로, 공원 체육을 위한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범람도 막고 공공의 부지도 확보하는 친환경 유수지 정책을 고안함

#### ○ 생태보전을 위한 선택, 마이즈루 유수지

- 홍수 조절을 위해 나가누마마치 마이즈루 지구에 정비된 치수 시설(면적 : 200헥타르)
- 유수지 6개 중 하나인 마이즈루 유수지는 생태보전을 위한 선택, 생태계 보호를 테마로 한 활용 방안은 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함
- 2016년부터 매년 1쌍의 두루미가 번식. 주민들은 생태적인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유수지의 생태보전에 더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함
- 새의 역 마오이토 : 조류 관찰의 거점

#### ○ 나가누마초 그린투어리즘 운영협의회

- 최근에는 이주자나 새로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누마로 이주해 온 전입과 관광객 등 나가누마를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핫카이드 내에서도 주목받는 명소가 되고 있음.
- 나가누마초의 행정과 농협의 관계, 그리고 농민과의 관계성이 좋은 이유는 나가누마초가 상대적으로 상업이나 공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여김.

#### ○ 주요 착안점

- 주민과 생물의 공존 방안, 민·관 협력을 통한 생물 서식처 보전을 위한 노력

##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9. 6.(금) 14:00 ~ 15:30
- 장 소: 마오이토, 마이즈루 유수지 일원
- 주요 면담자: 나가누마초 생태관리 공무원, 나가누마초 촌장 등
- 주요내용: 유수지 정책수립 배경, 생태계 보전 노력, 마을 연계 관광사업 추진 현황 등

## 다. 견학내용 및 시사점

### 【 발상의 전환으로 이뤄낸 자연과의 공생 】

- 나가누마초에 있는 유수지는 과거 백로와 철새들이 찾아왔지만 습지를 메워 농경지를 만든 탓에 철새들은 사라지고, 치토세강의 범람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음.
- 2012년 마이즈루 유수지 조성 과정에서 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을 직선화하고 제방을 쌓는 방안 대신에 나가누마초 지역에 빗물그릇을 만드는 방안을 고안해 냈. 나가누마초에는 치토세강의 직강화를 막기 위해 총 6개의 유수지를 만들었음.
- 6개 중 하나의 유수지인 마이즈루 유수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두루미들의 서식처가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두루미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함.
- 주민들은 두루미가 실제 올지 확신은 없었지만 두루미 둥지 만들기, 월동기 물 마시는 장소 만들기, 사고 예방을 위한 전선 도색 등 두루미를 유도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갔음.
- 2012년에 유수지가 완공되고 나서 습지로서의 기능이 복원되자 2016년부터 매년 1쌍의 두루미가 번식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유수지의 생태보전에 더 집중함.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자 번식된 두루미 가족은 인근지역으로까지 번식지를 확장해 갔음.
- 한편으론 주변지역이 철새들의 집단번식지나 월동지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생태적으로 찾아오는 지역이

농사가 잘 된다는 일부 연구를 토대로 쫓아내거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실제 1쌍의 번식에 성공한 두루미 가족이 확인되면서 마이즈루 유수지의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었음.
- 이처럼 나가누마초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환경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농업과 환경 보호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할 것임.
- 이외에도 자연 경관과 야생 조류 관찰을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며 자연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나가누마초의 성공적인 환경 보호 활동과 성과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온 국토에 난개발이 만연한 우리나라에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함.

## 라. 견학 사진



마오이토 전경



브리핑 청취



브리핑 청취 및 질의 응답



유수지 전경

## IV 종합의견

### ① 중장기적인 보전관리를 가능케 하는 정책 비전과 실행체계 구축 필요

- 민간단체(시레토코 재단, 아이누민족문화재단) 위탁경영으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학술 자료 풍부, 습지 인식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습지 정책의 목표는 보전, 교육, 관광으로 정하여 각 파트별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지역활동가, 외부 전문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20년 이상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함을 시사함.

### ② 지역 주민의 공감대합의 형성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시레토코, 쿠시로습지, 츠루이무라, 나가누마초 등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없다면, 개발 논리에 밀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는 고사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은 머지않아 심각하게 훼손되어 소멸하리라는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음.
- 지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는 주체도 주민이며 이를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것도 주민이 하여야 할 일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존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조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음.
- 습지의 보전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있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체 및 협약 등을 통한 민·관 소통이 있어 갈등을 극복하고 소중한 자원을 함께 가꿔나가고 있음.
-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자발적인 참여까지 얻기 위해서는 지역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실현 가능함.

### ③ 세계자연유산 등재 자체보다 경제적 이익에 치우치는 것 경계 필요

- 습지가 지닌 생태보전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생태관광으로 이용되는 경제적인 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레토코 재단과 쓰루이무라, 마이즈루 우수지의 공존을 통한 지역발전 방향 설정은 습지 보전이라는 측면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관리한 실태를 보여줌.

-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후 생태관광 등 방향 설정의 중요성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점임을 시사하였음.
- 한편으론 등재의 목적이 지역 관광수입의 증가, 고용기회의 확보, 관광 관련산업의 활성화,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 경제적 이익에 너무나 치우쳐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본연의 목적은 단지 등재 달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치를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서 장래에 걸쳐 전해 가는 데 있음.
- 이에 무안갯벌이 가지는 자연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그 보전과 활용에 대해 지역 스스로 논의하고 실천해 가는 계기로 삼고 이러한 방향에서 등재 달성에 필요한 조치와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④ 생태적 브랜딩을 위한 국내·국제 거버넌스체계 구축

- 우리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레토고와 쿠시로습지와 같은 생태적 브랜딩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한일 세계유산 심포지엄 개최 및 동아시아 교류 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는 특히 습지 관리에 있어 국내·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 공동체 참여를 중요시함.
- 땅 100평방미터 갖기와 숲가꾸기 등 지역의 문제점과 이슈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생태·관광적 가치를 창조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환경정비 등 지역주민과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갯벌 거버넌스 구축도 요구됨.